



비양도 제1·2 도항선 갈등 갈수록 태산

제1도항선측 해녀 12명 선착장 입구 해상서 시위
제2도항선 1시간만에 회항... 애꿎은 승객만 피해

도항선을 놓고 마을이 두쪽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는 비양도에서 해녀들이 해상 시위를 벌이며 도항선 입항을 저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오전 9시35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선착장 입구 쪽 해상에서 해녀 12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비양도해운 도항선을 막아섰다.

해녀들은 해상에서 “물러가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 해경 연안구조정이 해산할 것을 요구했지만 해녀들은 꺾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도항선은 1시간 가량 해상에 머물다 결국 회항했다. 선사 측은 승객 40여명에 대해 모두 환불 조치했다.

시위에 나선 해녀들은 비양도천렌드의 주주이거나 가족을 주주로 둔 비양도 주민들이다. 천년렌드는 지난 2017년 한림항·비양도 항로에 가장 먼저 취항한 제1선사, 입항을 저지 당한 비양도해운은 뒤이어 취항한 제2선사다. 1선사는 비양도 60가구 중 53가구를, 2선사는 천년렌드

에 출자하지 않는 나머지 7가구의 가족들을 주주로 뒀다. 2선사는 지난해 11월 8일 첫 취항했지만 소송에 휘말려 3일만에 운항을 중단했다. 당시 1선사는 “시가 부당하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줬다”며 운항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주시는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자 2선사 측에 지난해 내준 허가를 취소하는 대신, 올해 초 2선사가 새로 낸 공유수면 허가를 수용했다. 2선사가 현재 이용하는 항구는 앞서 허가 받은 곳에서 남쪽에 있다.

1선사 도항선은 지난 1일을 기해 운항을 중단했다. 시는 두 선사가 통합선사 등 도항선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조건으로 양측의 지난달말 만료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엔 마을 항구 시설 사용 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1선사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선착장 입구 쪽 해상에서 해녀 12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비양도해운 도항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시위를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생선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선사가 그동안 이용해 온 동쪽 항구는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따른 개선 공사가 시작돼 당분간 이용할 수 없다. 1선사가 도항선을 운항하려면 2선사가 허가 받은 남쪽 항구 시설을 같이 써야한다. 1선사는 2선사 측에 공사 기간에만 남쪽 항구를 같이 쓰자고 요구했고, 2선사는 공사가 끝나면 동쪽 항구를 서로 같이 사용하자고 했다.

두 선사간 다툼에 가장 피해를 본 쪽은 승객들이다.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러 온 A(23·경기도)씨는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비양도 올레길을 걷기 위해 도항선을 탄 오모(60·서귀포시 성산읍)씨는 “이런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도항선을 둘러싼 마을 내 다툼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우도에서는 지난 2004년과 2014년 새로운 도항선사가 나타날 때마다 법적 다툼을 벌여 마을이 두쪽으로 갈라지는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도 해녀들이 도항선 입항을 막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4·3수형생존인 2명 재심재판 청구

고태삼·이재훈 할아버지
“이유없이 끌려가 복역
이제 억울함 풀게됐다”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세번째 재심 재판 청구에 나섰다.

제주4·3도민연대는 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3차 4·3수형생존인 재심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4·3수형생존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재심 청구에는 청구인인 고태삼(91), 이재훈(90) 할아버지가 참석했다.

4·3도민연대 등에 따르면 고태삼 할아버지는 1947년 6월 6일 있었던 종달리 6·6사건에 연루돼 단기 1년, 장기 2년형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당시 나이 16세이던 고씨는 동네 청년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세화지서 경찰관 3명과 마을청년들과의 충돌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누명을 썼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1947년 8월 13일 경찰이 쏜 총에 복춘마을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은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중학생이던 이씨를 고문해 “빠라(북한 선전물)를 봤다”는 거짓 증언을 받아냈다. 거짓 증언을 한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다.



2일 재심청구에 나선 이재훈(왼쪽) 할아버지와 고태삼(가운데) 할아버지.

이씨는 “아무 이유도 없이 끌려가 말로 못할 고문을 당했다”며 “겪은 과거를 생각할 때 너무 억울했지만,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 오늘 이렇게 재심 청구 기회를 준 4·3연대 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 번호를 받은 입재성 변호사는 “재심 개시가 되려면 불법구금사실과 고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며 “구금 사실은 영장발부가 남아있는지, 고문 사실은 생존자 분들의 생생한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3차까지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생존인은 총 28명이다. 1차(18명)는 형사 보상 판결을 이끌어 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 소송 진행 중이며, 2차(8명)는 재심이 개시되지 않았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공공기관 통합 채용시험 도, 6~10일 응시원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계획’에 따라 제1회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를 6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하고 4월 25일 예정된 필기시험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면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제1회 통합채용 시험을 통해 7개 공공기관에서 총 96명을 선발·채용할 계획이다.

응시원서(입사지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필기시험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jeju.incruit.com>)를 통해 6일부터 10일까지 응시자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분야에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는 1개 기관의 1개 분야에만 응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고태로기자



4·3희생자 위령제례 제주4·3유족회가 2일 4·3 72주년을 맞아 4·3평화공원에서 희생자 위령제례를 봉행했다. 강희만기자

조립식 창고 전소... 1억원 상당 재산피해

2일 오전 10시54분쯤 제주시 건입동 한 주유소 조립식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119에 의해 15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창고(237㎡)와 간판 자재 등이 모두 불에 타 9700만원 상

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내 투표소 53% 장애인 접근 불가능”

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90곳 조사결과 42곳만 양호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주도내 투표소 48곳이 주 출입구로 접근이 불가능해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내 전체 투표소 230곳 중 90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여부를 비롯해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편의제공 등이다.

조사 결과 모니터링을 실시한 투표소 90곳 중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한 투표소는 42곳(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해 투표 자원인력으로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고 있지만 이는 해결책이 아닌 임시 방편일 뿐”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그에 걸맞는 접근권이 보장되는 투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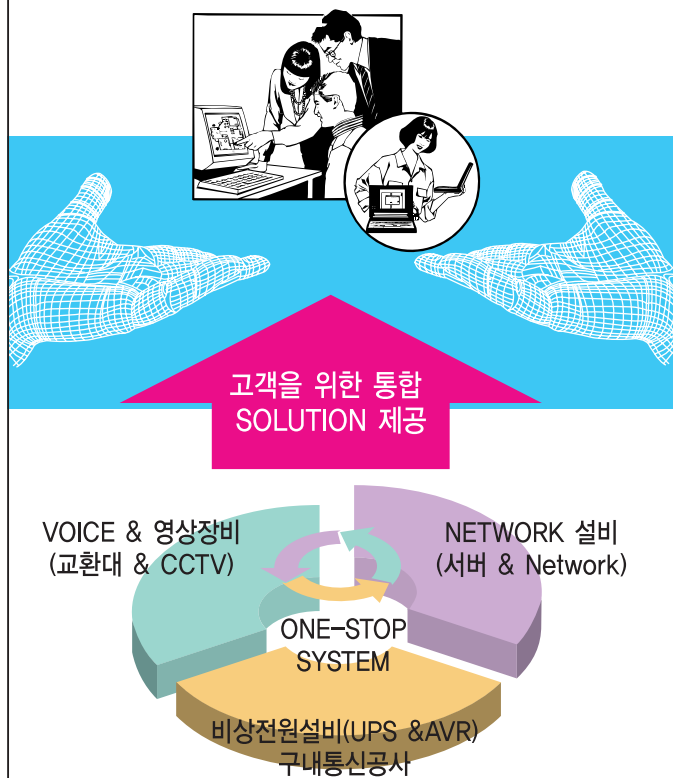
-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TN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서귀포시정 소식

2020년 제14기 서귀포시 여성대학 수강생 모집 알림

- 모집기간: 2020. 3. 30(월) ~ 4. 10(금), 2주간
- 모집대상: 서귀포시 거주여성 100명
 - * 모집인원 초과 시 대기자 접수 후 결원발생 시 충원
- 교육기간: 2020. 4. 28 ~ 10. 13 / 매주 화요일 19:00~21:00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내용: 리더십, 제주역사·문화, 성인자감수성, 현장학습 체험 등
- 교육장소: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
- 신청방법: 전화 또는 팩스 신청
 -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문접수 지양 함
- 접수장소: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선정결과 및 통보: 2020. 4. 17(금)까지 문자메시지 등 통보
- 수강료: 무료 (도의 현장학습의 경우, 자부담 있음)
- 접수 및 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760-2443, FAX 760-2449

2020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지소) 금연클리닉 운영 알림

- 운영기간: 연중
- 운영장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표선·성산보건지소
- 금연상담실
- 운영대상: 관내 흡연자(금연희망자)
- 운영내용
 - 금연클리닉: 매주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 일산화탄소 측정 및 금연상담
 -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 지원
- 문의사항: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760-6123, 760-6190
 - 표선보건지소 ☎ 760-6162, 성산보건지소 ☎ 760-6151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알림

- 단속기간: 2020. 3월 ~ 11월 / 월 2회
- 단속장소: 공회전제한구역(서귀포관내 24개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
- 단속기준: 제한지역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
 -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 문의전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760-2927

2020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 알림

- 신청기간: 2020. 4. 1(수) ~ 5. 29(금)
- 신청대상
 -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 등 실체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내 무연분묘
 - 공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 내 무연분묘
 - (단, 개인인 경우 재산관리인의 위임을 받을 것)
 - 마을 주가지 내 무연분묘
- 신청자격: 토지주
- 신고처: 분묘소제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개장허가신청서, 최근 분묘사진, 토지등기부등본(을구포함)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증명서, 분묘위치도(지적도 등)
- 비용부담: 개장 확정 후 개장관련 일체비용 신청인 부담(단, 분묘개장 공고료 서귀포시 부담)
- 문의사항: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760-6522